

전체 주제:
아가서에 묘사된 이기는 생활

메시지 10

네 번째 단계의 이김

(1)

우리가 지성소 안에 살며 하나님의 성소가 되도록
우리의 육체를 다름에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더 강한 체험

성경: 아 6:4상, 요 14:20-21, 23, 엡 3:17, 히 10:19-20

I. 네 번째 단계의 이김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연인은 휘장 안에서 생활함으로 육체와 타고난 사람과 옛 사람을 이긴다—아 5:2-6:13.

II.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소, 하나님의 거처를 상징하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둘러싸고 있다—6:4절상.

- A. 그리스도의 이기는 연인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 될 때 그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디르사처럼 아름답고 예루살렘처럼 사랑스럽다.
- B. 그리스도의 연인은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생활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에 있어서 성숙하게 되어 하나님의 건축과 하나님의 성소와 그 보호가 된다—비교 창 2:8-12, 18-24, 고전 3:9-12.
- C. 그리스도의 연인은 그분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승천을 체험하며 지성소, 하늘의 성소의 내실, 휘장 안에 산다—아 4:8.
- D. 우리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삼일 하나님과 합병되어 그분의 거처가 된다—계 2:4, 요 14:20-21, 23, 엡 3:17.
 - 1.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기를 갈망하시게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며 우리 안에 있는 동일한 사랑이 우리로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기를 갈망하게 한다—요일 4:19, 8, 16.
 - 2. 우리는 아가서에 계시된 신성한 로맨스의 네 단계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거처, 성소, 지성소가 된다—1:2-3, 2:14, 4:8, 6:4.
 - 3. 우리는 최고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신성한 로맨스의 각 방면에 참여함으로 확대된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이 된다—계 21:9-10.
- E.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은 측량 못할 풍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자람에 있어서 (그리스도의 몸의 건축과 관련하여) 성숙에 이르도록 건축되는 것이다—엡 4:12-16.
 - 1. 구약에서 하나님의 건축은 디르사와 예루살렘으로 예표되었다. 신약에서 이 건축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다—16절.

2. 몸의 건축은 유기적이며 생명 안에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에 달려 있다—15절.
3. 궁극적으로, 그리스도의 아내(5:25-32)인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건축은 영원 안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구속받은 이들의 상호 거쳐, 곧 지성소의 완결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—계 21:2-3, 16, 22.

III. 하나님의 새 창조인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후에 육체를 다름에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더 강한 체험을 통하여 휘장 안에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필요하다—히10:19-20.

- A. 하나님의 성소가 하늘들 안에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에 의해 두 부분-바깥 성소와 안의 지성소-으로 나누어진다.
- B.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의 성소에는 부정적인 것-우리의 육체-이 있다.
 1.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성소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—마 27:51.
 2. 믿는 이들에게 휘장이 남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휘장을 사용하시어 그분을 추구하는 이들을 온전케 하고 지성소이신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그분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—고후 12:7, 계 21:22.
 3. 우리가 아무리 영적이고 성숙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아직 변형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휘장인 육체를 가지고 있다.
 - a.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휘장, 육체는 반드시 찢어져야 하며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성소 안에 살기 위해 찢겨진 휘장을 지나가야 한다—히 10:19-20.
 - b. 우리는 매일 휘장 안에-지성소 안에,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 안에- 살기 위해 십자가의 다루심을 체험하여 휘장을 통과함으로 십자가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—갈 5:24.
- C. 그리스도의 연인은 하나님 자신인 지성소 안의 휘장 안에 살도록 그분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신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누린다—히9:3-4.

IV. 십자가의 다루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된다. 이 성소는 지성소, 곧 하나님 자신이다—아 6:4상.

- A. 지성소 안에 들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성소가 된다.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—히 10:19-20.
- B. 요한복음 14장 23절과 에베소서 3장 17절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복사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입증한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복사관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거쳐, 곧 그분의 지성소로 만든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.
- C. 그리스도의 연인들은 결국 신격에 있어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사관이 될 것이다.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 되심은 사람으로 하나님 되게 하심, 곧 신성한 계시의 고봉의 성취이다.